

오순절 후 열 번째 / 창립 42주년 기념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0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8월 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46 장 “내 주의 나라와” (새 208)	인도자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2 번 시편 (Psalm) 14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렘(Jer.) 29:4-7, 벰전(1 Peter) 2:4-9	고민영 집사
설 교 Sermon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Be A Holy Priesthood)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242 장 “교회의 참된 터는” (새 60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머물며, 그릇된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지은 죄(Sin of Commission)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지은 죄(Sin of Omission)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벰전 2:9)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한글개역 벰전 25)
“you also, like living stones, are being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to be a holy priesthood, offering spiritual sacrifices acceptabl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NIV 1 Peter 2: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9 (주일)	8/10 (월)	8/11 (화)	8/12 (수)	8/13 (목)	8/14 (금)	8/15 (토)
	룻2	룻3,4	삼상1	삼상2	삼상3	삼상4	삼상5,6
본문	행27	행28	롬1	롬2	롬3	롬4	롬5
	렘38	렘39	렘40	렘41	렘42	렘43	렘44
	시10	시11,12	시13,14	시15,16	시17	시18	시19

수/요/성/경/공/부	특/별/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8/12수 오후7:30)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민 22:5-14)
특별 새벽기도회 (8/15토 오전6:30)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6:1-9)

지난 주일(8/2)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게 합니다”(히 11:7-10)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고지식하게 행동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아브라함**도 이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일상 가운데 적용해볼 수 있겠습니까?

1)첫째, 노아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 만큼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며, 결국 의를 좇는 의의 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2)둘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며,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메/모